

중 저장성과 자매결연 20주년 한·중 포럼

도시농촌기획설계 전문가 6명 방문
20년째 지역 현안 주제로 교류 활성화

전남도는 중국 저장성과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4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도와 시군 공직자와 저장성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 우호교류 차원의 20번째 한·중포럼을 개최했다.

‘제20회 한중포럼’에 저장성에서는 인민정부 가오이(高屹)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도시농촌기획설계 분야 전문가 등 6명이 방문했다.

포럼 주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안’이다. 두 지역에서 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토론에서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을 천만화 저장성 도시농촌기획설계연구원 원립2소 부소장이 ‘3대 유산 연결지의 재생과 문화부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평군 석양마을 주포권역 활성화’ 사례와 ‘저장성 항저우 기차역 주변의 구도시 개발’ 성공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이어 박종철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와 사례발표에 대해 두 지역 토론자와 열린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 앞서 저장성 대표단은 성공사례 지역인 한평 주포권역 다목적센터와 오토캠핑장, 한옥민박촌 등 전남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 저장성과의 우호교류 협력이 20년째 활발히 유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포럼을 통해 두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는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저장성과의 ‘한·중 포럼’은 1999년부터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문화, 환경, 농업기술, 통상·투자, 관광교류 등 두 지역 현안을 주제로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완도군, 슬로시티 비전 및 전략 논의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완도군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변신을 시작했다. 완도군은 지난 3일 ‘슬로시티 완도 전 지역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한국슬로시티본부 부를 비롯한 완도군청 전 부서장이 모여 ▲1島 1색 (특색 있는 섬 만들기) ▲해양치유산업과 섬 재생 프로젝트 결합 ▲섬과 섬의 연결을 통한 관광객 동선 확대 등 완도 슬로시티 제3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산도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에 이어 2013년 재인증 받았다.

지난 4월 완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슬로시티 인증도 받았다.

이에 군은 슬로시티 발상지로서의 발전 방향과 완도 전 지역 확대를 통한 권역

별 관광자원화와 슬로시티 운동 확대를 위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해 10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 선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 인증 이듬해인 2008년 관광객이 8만8000명 정도였지만 10년 후인 2017년에는 34만4000명으로 늘어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기획한 ‘2018 여름휴가 여행 조사-국내 여행지 만족도’ 기초 자치·군 종합만족도에서 완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2위로 평가받았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

광주시, 청사 방호시스템 예산 삭감

방호 설치·커튼 교체 등 6억 전액 삭감
공간 제약·낭비성 예산 반대 부딪혀

광주시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청사 방호시스템 사업비와 커튼 교체 비용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테러나 정보 유출을 막고 공무원 보호,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해 예산을 세웠지만, 열린 공간을 제약할 수 있고, 낭비성 예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대론에 부딪혔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남 시·지자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청사 방호 시설물 설치비 3억원과 청사 내 커튼 교체비 3억원 등 모두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내년부터 2년 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방호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3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1층 메인 통로 엘리베이터 탑승구역에 ‘스마트형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체 게이트를 통과하는 이들을 경보음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8일 제8대 광주시의회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회

시는 지난 2012년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업무중이던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데 이어 2016년 4월, 20대 공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인사혁신처 무단 침입과 성적조작 사건이 터지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방호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정기감사에서 ‘보안이 허술하다’고 지적받은 점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높였다.

그러나 ‘열린 청사’ 표방으로 시민 출입이 자유로워진데다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되면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었고,

시의회 상임위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인데,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건 성급하다. 좀 더 지켜보자”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시는 또 청사 내 커튼이 햇볕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공무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15년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암막커튼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억원을 책정했으나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모두 삭감됐다.

/광주=봉태형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모금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성금전달식
모금 목표액 5억... 참여 확산 독려

평택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4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모금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청 내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모금캠페인은 민·관이 나눔의 뜻을 모아 지역 특화형 나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내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설치로 평택시 나눔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내 기업체, 단체, 시민들의 나눔 참여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동우화인켐 임승훈 상무, YKK한국노동조합 송영범 위원장, 여성기업인협의회 최원희 회장, 평택상공회의소 이보영 회장,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사장이 성금 전달을 위해 참여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순 회장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동우화인켐(9100만원), 평택도시공사(2800만원), YKK한



정장선 평택시장과 경기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 등은 4일 시청내에 사랑의온도탑을 설치하고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1000만원), 평택시 여성기업인협의회(200만원), 평택상공회의소(100만원)에서 성금을 기탁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동시에 나눔에 동참하여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다.

올해 평택시 모금 목표액은 5억 원이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는 캠페인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시연과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기사랑의열매 강화복 사무처장은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성금을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택시 나눔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1 | 해질 / 17:14

12월 5일 (수)
음력 : 10월 28일

수도권 날씨 **-4 ~ 4°C**

연천	-7/3
동두천	-6/4
가평	-6/5
파주	-7/4
서울	-4/4
양평	-6/4
인천	-3/3
수원	-5/3
용인	-5/3
평택	-5/3
백령도	0/2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천 불법소각 더 이상 안돼”... 순찰 강화

평택시, 민원 급증에 집중단속

평택시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흥군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장흥군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2018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경호 8인조밴드, 군조, 타이푼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며, 장흥군이 주최하고 JK아트컴퍼니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원으로 개인 당 5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매권은 5일부터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선착순 현장판매한다.

/전남 장흥=유지훈 기자